



한조문법비교연구

한조문법 비교연구

허동진 편저

한조문법비교연구

한조문법비교연구

한조문법 비교연구

허동진 편저

한
조
문
법
비
교
연
구

한
조
문
법
비
교
연
구



연변대학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朝语法对比研究/许东振编著.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2010. 6

ISBN 978 - 7 - 5634 - 3222 - 6

I. ①韩… II. ①许… III. ①朝鲜语 - 语法 - 研究
IV. ①H55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0) 第 085008 号

韩朝语法对比研究

编著: 许东振

责任编辑: 金美淑

封面设计: 金胜铉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

邮编: 133002

网址: <http://www.ydcbs.com>

E-mail: ydcbs@ydcbs.com

电话: 0433 - 2732435

传真: 0433 - 2732434

发行部电话: 0433 - 2133001

传真: 0433 - 2733266

印刷: 大厂回族自治县兴源印刷厂

开本: 710 × 1000 毫米 1/16

印张: 14 字数: 242 千字

印数: 1000 册

版次: 2010 年 7 月第 1 版

印次: 2010 年 7 月第 1 次

ISBN 978 - 7 - 5634 - 3222 - 6 (民文)

定价: 28.00 元

머 리 말

언어는 한 민족을 구별하여 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우리말은 한 민족의 언어이다.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말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 긴 역사행정에서 다른 민족의 우수한 정화를 받아들여 우리말을 더욱 세련된 말이 되게 발전시켜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섬세한 사상, 감정 색채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말로 다듬어 내려 왔다. 유례없이 뛰어난 문자를 만든 역사도 수백 년이 된다. 하여 어떠한 복잡다단한 내용과 형상도 자유자재로 남김없이 표기할 수 있는 언어 문자로 되게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분단이란 본의 아닌 비극적 사태로 장벽을 쌓아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가슴 아픈 이질 현상을 한탄하게 되었다. 근년에 와서 남북의 접촉이 빈번하여짐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게 되었음을 새삼스럽게 놀란 듯이 바라본다.

같은 말, 같은 글을 써 오던 우리말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사회 제도란 환경에서 서로에게 생소한 말들이 생겨나고 남의 말들이 우리말 속에 들어 왔으며 그 때문에 같은 언어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서도 다른 것이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같은 문법현상에 대한 분류, 체계, 명명 등에서 적지 않은 이질적 색채를 보이게 되었다.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고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쓰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지금은 제 나름의 같지 않은 언어표현을 쓰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같은 재료를 놓고도 부동한 방법에 의해 달리 분석하고 처리하는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다. 같은 언어 소재를 가지고도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름 짓고 다르게 부르며 다르게 설명한다. 언어 규범이 달라졌고 쓰거나 읽는 것도 다른 현상이 생겼다. 물론 아직까지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며 우리말의 기본 틀인 문법 구조에서 어떤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이는 확실히 있으며 가끔 가다가 대방이 자기 체제에서 생긴 말을 쓸 때마다 ‘엉?’ 하고 놀라 의문스러워 하는 현상은 비밀비재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오래도록 우리말을 전공하여 온 사람으로서 실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원래 하나였던 우리말의 동질성을 도로 찾아 그 확립을 더 잘 도모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평소에 남북 언어연구에서 차이를 미봉하는 길을 모색하여 보려고 여러모로 살펴보며 때로는 졸렬한 문장도 써 보던 차에, 아예 그것을 종합하여 보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남북이 서로 통일을 갈망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우리 각자가 자기 것만이 모두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처한 생활환경의 범위와 제도에서 받은 교육의 울타리에서는 제약성을 피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모두 다 일떠나 의사 교류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때가 되었다. 내가 살아온 국한된 환경의 제한 속에서 벗어나 보다 더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우리말의 실체에 파고든다면 어느 것이 우리말 발전규율에 맞고 어느 것이 우리말 생활에 더욱 이롭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차이를 축소하고 공통성을 찾는데 더 힘을 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상대방의 이론이나 방법에 거부적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차분히 대방의 이론이나 방법을 모색하여 그 속에서도 일리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아내고 동질성을 찾아내며 차이를 밝혀 그 원인을 발굴해 낸다면 기꺼운 성과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차이는 일상 언어생활에서보다도 언어연구자들의 부동한 연구 방법에 의해서 더욱 똑똑히 나타나는 것 같다. 아쉬운 것은 비교 연구 자료가 매우 결핍하여 지금까지 더러 보긴 하였지만 그나마 얻은 자료란 한국의 것이 대부분이고 조선의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 그리고 더러 본 책들에서도 어쩐지 ‘나 중심’이란 느낌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책에서는 되도록 어느 면에도 기울이지 않는 비교를 하여 보려고 노력하였다. 허나 나 자신의 수준의 제한과 학문적 얕은 바탕 그리고 받은 교육 환경 등의 제한성 때문에 소기의 바람을 이룩할 수 없음을 애타게 생각한다. 가끔 서술한 필자의 견해는 제한된 환경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점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문법연구의 비교는 주로 공통점보다 차이를 찾아내는 데 뜻을 박았다. 그리고 문법연구라 하지만 전통적인 학교문법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그 체계대로 품사, 형태, 문장, 어음으로 나뉘어서 비교하였다. 어음은 문법과는 좀 떨어진 학문이지만 전통적인 학교 규범 문법에서 어음 연구와 문법연구가 언어연구에서 떨어질 수 없는 유대 때문에 줄곧 함께 연구되어 왔으므로 여기서도 함께 비교하였다. 어음은 근래에 와서는 성음론과 음운론으로 분별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고교문법》이나 《조선문화어문법》 등에서는 어음(말소리)이란 이름으로 성음과 음운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학문적 세분은 뒤쳐놓고 학교문법 체계대로 어음이란 이름으로 비교하였다. 형태론에서는 언어의 구조, 품사, 단어의 형태(조사와 어미)를 다루었으며 통사론이라 하지 않고 문장이라 하고 문장의 성분이나 그 구조를 대조하였다. 비교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학자들마다 자기 나름의 주장들이 있어 남과 북의 대표로 될 만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70년대에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바람이 불어 기존의 한자어 용어를 고유어로 바꿔 썼으나 80년대에 이르러 다시 기존의 익숙한 한자어를 회복하여 썼지만 문법연구의 내용에서는 변함이 없어 거의 통일된 견해로 되어 있으므로 《조선문화어문법규범》과 《조선문화어문법》,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형태론, 문장론)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재들인 《문화어형태론》, 《문화어문장론》, 그리고 그것을 합본한 《문법론》 등을 참고로 하였다. 90년대에 와서 조선 사회과학원에 의해 《조선어학전서》가 간행되면서 기왕의 언어학서적을 재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연구의 열의를 북돋아 주어 문법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게 하여 《조선어품사론》, 《조선어형태론》, 《조선어문장론》 등 새로운 문법서들이 나왔으므로 이런 저서들도 최신 연구성과들이라고 보아 주요 참고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문법적 견해는 규범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 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주요한 문법적 견해는 이왕의 견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으므로 참고로만 하였다. 다만 새로운 견해가 보일 때는 적당히 제시하여 두었다. 한국은 60년대에 나온 학교용 16가지의 문법책의 기초에서 70년대에 통일 교재를 내와야 한다는 호소에 항응하여 문교부의 주체로 쓴 《고교문법》과 그것을 기준으로 교육대학용 문법서로 편찬된 《표준국어문법론》이 비교적 표준적

인 대표성을 띠었다고 보아 이 두 문법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과 《우리말의 통사론》, 《우리말본》과 국어문법 연구에서 획기적 선풍을 일으켰으며 역사적 대 업적을 쌓았다고 하는 《국어문법》 등을 위주로 하면서 《국어표현문법》, 《우리말 형태론》, 《현대국어문법》 등을 참고로 하고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될 때에는 적당히 다른 문법서를 인용하였다. 비교의 자료는 70년대 이후의 문법서들을 위주로 하였으며 국가 출판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출판된 것들을 의거로 하였다.

차이는 있으나 그것은 축소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언어연구도 통일의 염원의 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언어연구는 그 성질로 보아서 다른 모든 분야보다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인용되는 원문 그대로 하였음.)

차 례

머 리 말	1
제1편 단어의 구조	1
1. 단어 형태의 자립성과 분리성	1
2. 단어의 짜임새	5
3. 단어의 형태소 성질과 기능 분석	10
4. 단어 만들기 수법	10
제2편 품 사	15
1. 품사 분류	15
2. 명사	34
3. 대명사	35
4. 수사	52
5. 동사	59
6. 관형사	61
7. 부사	67
제3편 형 태	70
1. 조사	70
2. 격체계	79
3. 어미	97

제4편 문 장	123
1. 문장성분의 갈래	123
2. 구조 문법적으로 본 문장의 유형	142
제5편 어 음	154
1. 우리말의 자모수	154
2. 모음을 발음하는 혀의 위치와 입 벌린 정도	158
불 입	165
1. 맞춤법	165
2. 문법용어 대조	182
3. (비교의 의거로 된) 주요 참고서	215

제1편 단어의 구조

여기서는 ‘단어 형성(조성)’이나 ‘단어 만들기 수법’과 같은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보여지는 차이가 아니라 주로 문법서에서 제기되는 단어의 구조, 단어 형성법 등의 범위에서 비교하였다.



1. 단어 형태의 자립성과 분리성

《고교문법》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형태소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들을 단어로 한다. 단어는 원칙적으로 어절을 분석한 단위일 수도 있고, ‘읽었다’와 같이 한 어절이 그대로 한 단어가 될 수도 있다.”(11~12)고 하였다.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 “국어 단어의 정립 기준은 자립성과 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철수가 동화를 보았다”에서 ‘철수가’의 ‘가’와 ‘동화를’의 ‘를’들은 의존형태소이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48)이라는 이유에서 실질형태소에 붙어 그 형태소의 뜻을 제한하는 접사와는 달리 자립적 품사로 된다고 하였다. “‘철수가 동화를 읽었다’에서 ‘철수, 동화, 읽었다’가 단어가 되는 것은 자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립성을 띠었다는 것은 앞의 어절에서 본 바와 같이 앞뒤에 숨의 끊어짐, 곧 휴지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철수’는 자립형태가 그대로 단어가 된 것이요, ‘동화, 읽었다’는 의존형태가 결합하여 단어가 된 것이다. … ‘가, 를’은 의존형태소임에 틀림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단어의 취급을 받아 왔다. ‘읽었다’의 ‘었다’와 같이 실질형태소에 붙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단어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 실질형태소의 구조적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달리 처리한 것이다. 곧 ‘가, 를’이 붙은 말은 자립형태소인 데 대해 ‘있다’가 붙은 말은 의존형태소이다. ‘읽’은 ‘있다’와 결합되어야만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철수, 동화’는 그 자체로도 자립할 수 있다. ‘가, 를’은 의존형태소이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성은 그 앞에 다른 조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학자들은 영어의 관사, 전치사나 중국어의 허사(虛辭)가 자립성은 없어도 단어로 인정되는 사실을 들기도 한다. 국어의 조사가 영어, 중국어의 그러한 부류들과 성질이 꼭 같지는 않지만 조사의 단어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다. 요컨대 국어 단어의 정립기준은 자립성과 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의 제시만으로 단어가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는다. 부대적 조건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식탁에는 먹을 것이 많다.
- 맛이 어떤가 먹어 보아라.

에서 ‘것’과 ‘보아라’는 각각 의존명사와 보조동사로서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립형태소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나타나고 의미도 완전히 문법적이 아니므로 준자립어(準自立語)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런 말들은 단어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47~48)고 하였다. …결국 단어의 형태를 이루는 형태소에서 ‘가’나 ‘를’ 등 ‘토씨’는 제외되었다.

《우리말의 형태론》에서는 ‘낱말(단어)’에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말도(토)막은 한(또는 두) 자립형태로 되든지, 또는 둘 이상의 구속형태로 되든지 한다. 말도막이 그 자체로서 자립형태임은 물론이다. …여기 보이는 말도막 가운데,

- (1) 자립형태 하나로 된 것: 그, 잘
- (2) 자립형태와 구속형태로 된 것: 글-은, 말-은, 그릇-이니, 자리-를, 뒤-에야, 말-을
- (3) 구속형태와 구속형태로 된 것: 담-는, 없-고,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서-)

(4) 두 자립형태로 된 것은 앞에서 말한 ‘합침말’(땅덩이)이 이에 든다.

이 말들 가운데, (1)의 ‘그, 잘’처럼 한 자립형태가 한 말토막을 이루는 것과 (3)의 ‘답는, 없고’ 따위와 같이 두(또는 둘 이상) 구속형태로 한 말토막을 이루는 말들을 ‘낱말’이라 한다.(34)… 이렇게 앞의 말토막들에서 낱말을 가려내고 나면 남은 것은 (2)의 구속형태인 ‘은, 을, 이니, 이, 를, 예야’들이다. 위에서 들어 보인 낱말들은 모두 자립형태들인데, 이 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낱말의 자격을 주기가 주저스럽다. ‘낱말은 홀로 서는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들은 각각 한 낱말로 보아 주지 않으면 말본의 풀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이 말들도 한 낱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두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34 ~ 35)고 하였다.

뒤에서는 “토씨가 자립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토씨를 낱말로 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반론이 된다. … 그러나 우리보다 말본연구의 역사가 긴 서양 여러 나라의 말본에서도 자립성이 없는, 또는 약한 말을 조사로 인정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에스페르센’의 낱말설정에서 “분립성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문법서들에서는 단어의 형태를 어근과 접사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일반에 대해서는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조사는 그 분리성으로 하여 독립된 품사로 보아 단어의 형태에서 제외하고 어미만은 어근의 비자립성으로 하여 분리성이 없다는데서 단어의 형태로 다루었다. 그러나 조선의 문법서들에서는 이와 크게 구별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의 문법서들에서는 단어의 형태부에 모두 토를 포함시켰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서는 단어의 형태부를 말뿌리, 덧불이(앞불이, 뒤불이), 토로 나누고 단어의 구조를 형태부로 나누어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줄 기					결합모음	토
앞붙이	앞붙이	말뿌리	뒤붙이	뒤붙이		
말	만 시 되	밖 아들 누이 마당 생기 풀	질 ㅁ 이	새	으	니까 이 에게 로 가 를

《조선문화어문법》에서도 “형태부는 단어를 이루는데 어떻게 참가하는가에 따라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토로 나누인다.”(172)고 하였다.

《문법론》에서는 “...형태부는 그가 단어들에서 놀게 되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 몇개의 부류로 나눌수 있다. 우선 말뿌리와 덧붙이를 나눌수 있고 또한 줄기와 토를 나눌수 있다.”(59)고 하였다.

《조선어형태론》에서는 “조선어단어는 앞붙이, 말뿌리, 뒤붙이, 토로 이루어져있다.”(26)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문법서들에서는 단어의 형태에 어근, 접사뿐만 아니라 토까지 포함시켜 체언토(조사)까지 단어의 형태로 처리하였다. 즉 조선의 문법서들에서는 “토는 단어에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토는 말줄기의 뒤에 덧붙어서 단어의 문법적형태를 이루어준다.”라는 견해에 의하여 체언토(조사)를 단어구조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법서들에서는 “요컨대 국어 단어의 정립 기준은 자립성과 분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여 단어의 구조에 어근과 접사만을 넣고 토씨는 어근에서 분리된 자립형태인 단어로 보고 있다. 이같이 조선과 한국의 문법서들에서는 체언토(조사)를 자립적인 품사로 분류하여 한 단어로 보느냐? 어근에 융합되어 단어의 형태로 된 한 단어로 보느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허나 조선의 일부 학자들도 체언토(조사)를 분리시켜 자립적인 품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조사를 단어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단어의 구조에서 조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국어문

법》에서 서정수 선생은 “조사를 낱말로 인정하지 않고 ‘문법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곧 조사는 어휘로서의 의미-기능보다는 문법요소로서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므로 구태여 낱말 범주에 소속시키지 말고 문말 형태(어미) 따위와 함께 주요 문법 형태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78) 이 말은 조사(체언토)에 해당되는 형태소를 단어의 문법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상 단어의 형태로 보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한국 학계에서도 조사를 단어에서 분리된 자립적인 품사로 보고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도 있다. 토씨(조사)를 둘러싸고 그것을 단어의 형태로 보느냐, 명사에서 분리된 자립 형태로 보느냐에서 남북 간은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부동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뒤의 품사 가름에서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보는가, 단어의 한 형태로 보는가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단어의 짜임새

《고교문법》에서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 한다. ... ‘혼자 설 수 있’는 말을 ‘자립형태소’라 하고... ‘그것만으로 혼자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말을 ‘의존형태소’라 한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을 표시하’는 말을 ‘실질형태소’라 하고 ...‘실질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말을 ‘형식형태소’라 한다.”(10)고 하였다. 단어의 형성에서는 “단어를 분석할 때에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 한다. ...접사는 어근과 결합되는 자리에 따라서 접미사와 접두사로 나누어진다.”(45~46)고 하면서 “특정한 말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해 주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품사를 바꾸는 일도 하”는 접미사로 나누었다.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 “일정한 말들에는 각각 일정한 뜻이 있다. 더 쪼개면 의미가 상실되고 만다. 이와 같이 더 밑으로 분석하면 뜻을 잃어버리는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43) ... “형태소는 자립성의 여부와 의미의 허실에 따라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실질형태소(어휘형태

소)와 형식형태소(문법형태소)로 나누어진다.”(44)고 하였다. “짜임새가 복잡한 단어를 복합어”라 하면서 “복합어의 형성에 나타나는 실질형태소를 어근이라 하고 형식형태소를 접사라고 한다. 단어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어근과 접사는 나무의 뿌리와 거기서 자라난 가지와 비슷하다고 하여 ‘뿌리’와 ‘가지’라고 말하기도 한다.”(185)고 하였다. 결국 단어의 형태를 이루는 형태소에서 ‘가’나 ‘를’ 등 ‘토씨’는 제외되었다.

《우리말본》에서는 “어떤 낱말(씨)은 다시 쪼가를 수가 있는 것이 있나니 그 다시 쪼가른 조각 가운데에 그 뿌리가 되는 으뜸 조각을 씨뿌리 또는 뿌리(어근)라 하며, 그 뿌리에 붙어서 더러는 그 뜻을 보태고, 더러는 그 자격을 바꾸는 구실을 하는 조각을 씨가지 또는 가지(어지, 접사)라 일컫느니라.”(148)고 하였다.

《우리말의 형태론》에서는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의 낱덩이, 곧 언어 형태의 가장 작은 낱덩이로서… 형태소는 그것이 말토막을 짜 이루는 데 차지하는 자리에 따라 ‘뿌리’와 ‘가지’로 나뉘고 ‘가지’는 다시 ‘말 만드는 가지’와 ‘굴곡의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말 만드는 가지는 뿌리와의 상대적 자리에 따라 ‘앞가지’, ‘속가지’, ‘뒷가지’로 나뉘고 굴곡의 가지의 전형적인 것은 씨곶이라…(경우에 따라서는 토씨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형태소 — 뿌리

가지 — 말 만드는 가지 — 앞가지

속가지

뒷가지

굴곡의 가지 — 씨곶(토씨)(143)

《국어문법》에서는 낱말의 성분에 대하여 “형태소란 의미를 나타내는 소리 연결체로서 가장 작은 것, 곧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를 가리킨다.”(55) … “낱말을 이루는 형태소는 그 기능이나 결합관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낱말 또는 단어는 대체로 한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최소의 자립 형태 또는 그와 대등한 분포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서 문장의 구성단위가 되는 것이다.”(76)…

“낱말은 많은 언어에서 발음이나 띄어쓰기 따위의 단위로 삼고 있는 데서 자립적 구성단위로 여겨지고 있다.” … “낱말은 발음법이나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같은 것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테면 ‘우리는 낱마다 일터에 나가고 있다.’라는 문장은 ‘우리는’, ‘낱마다’, ‘일터에’, ‘나가고’, ‘있다’와 같은 단위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각기 낱말을 이루느냐 하는 데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 ‘우리는’과 같은 말은 서로 이어서 발음할 뿐 아니라 맞춤법으로도 붙여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한 낱말이라 하기는 어렵다. 또 ‘일터’와 ‘나가고’도 몇 낱말인지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에, 발음이나 맞춤법을 기준으로 하여 낱말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77) … “근래 문법관에서는 조사는 보통 낱말로 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서정수(1992년 198면)에서도 조사는 낱말로 인정하지 않고 ‘문법 형태’로 여기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곧 조사는 어휘로서의 의미-기능보다는 문법 요소로서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므로 구태여 낱말 범주에 소속시키지 말고 문말 형태(어미) 따위와 함께 주요 문법 형태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78)고 하였다. “낱말을 이루는 형태소는 그 기능이나 결합관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어근(말의 뿌리), 접사(접두사, 접미사, 접요소), 어간(또는 줄기)(79)

《우리말 형태론》에서는 “형태소란 의미를 가진 최소의 낱덩이이다.”(37) … “일반적으로 가지되기 과정은 가지가 주된 작용자 또는 몸인 뿌리를 중심으로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앞가지, 뒷가지, 속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가지들이 배합하는 과정을 ‘앞가지 되기’, ‘뒷가지 되기’, ‘속가지 되기’라 한다. 우리말에서 속가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지되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앞가지 되기

뒷가지 되기

앞·뒷가지 되기(137)

이와 같이 한국의 문법서들에서는 단어의 형태를 뿌리와 가지 즉 어근과 접사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일반에 대해서는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조사는 그 분리성으로 하여 독립된 품사로 보아 단어의 형태에서 제외하고 어미만은 그것이 결합되는 어근의 비자립성으로 하여 분리성이 없다는 데서 단어의 형태로 다루었다. 그러나 조선의 문법서들에서는 이와 크게 구별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에서는 “형태부란 단어에서 어휘적 또는 문법적 뜻의 ‘덩이’로 나누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126)고 하면서 단어의 형태부를 말뿌리, 덧붙이(앞붙이, 뒤붙이), 토로 나누었다.

《조선문화어문법》에서도 “단어가 짜이는데 참가하는 가장 작은 뜻덩이를 문법적인 견지에서 ‘형태부’라 부른다.” … “형태부는 단어를 이루는데 어떻게 참가하는가에 따라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토로 나누인다.”(172)고 하였다.

《문법론》에서는 “단어가운데서 어휘적 또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있는 부분을 ‘형태부’라 부른다.”(57) … “형태부는 그가 단어들에서 놀게 되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 몇개의 부류로 나눌수 있다. 우선 말뿌리와 덧붙이를 나눌수 있고 또한 줄기와 토를 나눌수 있다.”(59)고 하였다.

《조선어형태론》에서는 “조선어단어는 앞붙이, 말뿌리, 뒤붙이, 토로 이루어져있다.”(26)고 하였다.

단어 및 형태단어	말줄기			토
	앞붙이	말뿌리	뒤붙이	
김매기가 끝났다 맞물리는 담배질에 읽히시는	맞	김, 매 끝, 나 물 담배 읽	기 질	가 았, 다 리, 는 에 히, 시, 는